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친일인명사전’이 공개되는 등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시작 되었지만 여전히 일제 잔재는 우리 생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올해 초 법제처가 국회입법조사처로 제출한 법령 내 일제 잔재 정비대상 용어 50개로 현재 서울특별시 21개 조례에서도 이러한 일본어식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필’, ‘감안’, ‘개호’ 등의 일본식 한자어를 각각 ‘고쳐쓰’, ‘고려’, ‘간병’ 등의 표현으로 순화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서울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일본 잔재를 청산하고, 서울시민들이 쉽고 편리한 한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